

“새천년을 불국토로”... ‘바람’ 속에 담을 숙제

20세기 한국불교 **미제(未濟) 20**

■ 조계종 분규 척결

20세기 조계종 역사를 서술하는 주요 단어는 '분규'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조계종은 지난 해에 이어 올해 또 분규를 겪었다. 62년 통합 종단 출범 이후 오늘까지 30대에 이르는 총무원장의 평균 임기는 2년을 넘지 못할 정도였다.

분규 발생의 주요 원인이 50~60년대 불교정화(혹은 비구-대처분규) 당시 체계적으로 승려교육을 받지 못한채 양산된 승려들에 있으며, 또 사찰 재정이 풍부해지면서 이권(利權)을 쫓고 벌이는 승려들의 다툼이 덧붙여지며 고갈화 폭력화했다는 지적이다. 분규 단절을 위한 대책은 무엇이 나왔나. 그러나 분규 당사자들의 출가정신 회복과 화합하려는 의지가 없는 한 어떤 대책도 답이 되지 않는다.

■ 통일시대 대비

21세기는 통일시대이다. 그럼에도 통일에 기여하기 위한 교계의 활동은 식량 의류 등의 지원에 그치고 있다. 북한불교연구, 전통사찰 복원, 통일기금마련, 통일인력 양성 등 통일을 대비하는 내적인 기반 구축은 구호에만 그쳤을 뿐 실천은 요원한 상태다. 남북불교교류와 통일 기반을 구축하기 위한 전담기구의 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다. 특히 통일과정과 통일 후의 민족종교성 회복을 위한 교계의 노력은 남달라야 한다.

각 종단별 남북 추진과 물량 지원의 경쟁은 오히려 남북불교교류를 저해할 수도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종단간 협의기구 또는 종단협의회의 조정 역할이 요구된다.

■ 불교사회복지 체계화

불교사회복지사업은 비공식적으로 오래 전부터 있어 왔으나, 조계종 사회복지재단이 창립된 95년 이후 본격화됐기 때문에 아직까지 인적자원·제도·연구개발 등 모든 분야에서 제 궤도에 오르지 못했다. 따라서 21세기 문화복지시대를 대비하고 불교복지의 발전을 위해서는 조직화·체계화·사회화가 이뤄져야 한다.

현재의 중앙집중식에서 지역사찰을 중심으로 한 복지활동 시행과 지원체제를 갖춘 조직으로 탈바꿈하고 인적자원 개발과 연수를 위한 전문교육과 조직사업에 역점을 두어야 한다. 또 불교사회복지의 정체성 확보를 위한 연구개발을 통해 불교의 가르침이 사회복지의 출발임을 적극 알릴야 한다.

■ 한글대장경 디지털화

교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고려대장경 한글화 작업이 30여년만에 결실을 맺었다. 분량으로도 3백여권에 가까운 방대한 사업이었다. 이제는 디지털 대장경을 만들어야 한다. 한글 번역이 끝났으니 가능한 일이다. 기술적으로도 문제가 없으나 '정보 파벌주의'가 한글대장경의 디지털화를 막고 있다.

정보란 모든 사람에게 공유될 때 그 가치를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런데 교계에서는 '자신의 정보'에 대해 지나치게 집착하고 있다. '디지털 고려대장경'의 경우 <한글대장경>의 저작권을 갖고 있는 동국대와의 의견 절충이 어려워 자료로 올리지 못하고 있다. 역사적이지만 '정보'는 '공유(누출)'될수록 커다란 힘을 갖는다. 따라서 교계는 이같은 공감대를 반드시 형성해야 한다.

■ 불교시민사회운동 활성화

불교시민운동단체의 활성화는 불교의 미래를 가름하는 당면과제이다. 교리에 바탕한 풍부한 이념과 1천만 불자를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불교시민단체의 활동은 여전히 미약하다. 불교시민단체의 활동은 불교의 대사회적 위상을 제대로 평가받지 못하는 가장 큰 요인이 되고 있다.

불교시민사회운동은 부처님의 가르침을 실현한다는 점에서 그렇고 시민들의 불교인문 향구로서도 역할할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 현재 상황에서 불교시민단체들의 독자적인 활동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지원기금 마련이 시급하다.

또 종단 및 주요 사찰에서도 불교시민단체의 지부조직을 구성하고 지역 시민단체와의 연대를 통한 운동을 펼치는 방법도 불교시민운동을 활성화하는 대안이다.

■ 웹불사건

교계는 일제강점기는 차치하고라도 해방 이후 오늘날까지 타종교 세력으로부터 열거하기 힘들 정도로 종교편향적 차별과 웹불을 경험했다. 부처님오신날을 앞두고 연례행사처럼 일어났던 사찰방화와 불상 파괴 등 웹불만행은 개선될 여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 불교방송 및 불교TV 피습 사건, 잇따른 사찰 방화 등은 부지기수이고, 제주도 원명선원에서 불상 750좌의 목이 잘린 참혹한 사건은 대표적인 웹불의 웹불행위였다.

또한 국보나 보물등으로 지정된 문화재가 원인모를 화재로 전소되거나 불상이나 탱화등에 십자가가 그려져도 수사당국에서는 모른체 해온것이 사실이다.

수사당국은 언제나 '정신병자의 소행'이라며 소극적인 수사를 펼치고 있어, 이를 막을 수 있는 근본적인 법률 제정 등 제도적인 보완이 시급하다. 최근에는 인터넷 사이버 공간에서도 해킹 등을 통한 웹불행위 발생하고 있어 이런 필요성은 더욱 높아지고 있다. 종교간의 대화를 통한 화해 분위기 조성과 함께 엄격한 법적용이 웹불사건을 예방하는 길이 될 것이다.

■ 한국선불교의 세계화

20세기 문명은 물질의 풍요와 속도의 빠른 추구를 추구했다. 사람들은 소유의 욕망과 빠름에 뒤처지지 않아야 생존할 수 있다는 절박함 속에 살고 있다. 해탈과 무소유 근원부정의 사상을 담고 있는 선은 분명 21세기의 삶의 지침이 될 수 있다. 특히 한국선은 수행전통이 단절된 중국불교, 건강과 정신집중에 효과가 있다고 선전되는 일본의 선과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한국선불교에는 수행을 통한 직관의 힘과 깨달음을 향한 투철한 기상이 역력히 살아있다.

한국선불교의 세계화를 위해서는 선어를 우리 시대의 언어로 복원하는 일, 생활과 밀접한 선문화의 창조 등의 과제를 풀어야 한다. 그러할 때 'ZEN'이 아닌 'SEON'이 세계적인 언어로 등재될 것이며, 한국선불교가 인류에 기여하는 기초를 놓는 일이 될 것이다.

■ 어린이 청소년 포교 확대

80년대 이후 일기 시작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도심포교당을 중심으로 전개되어 왔다. 상당수의 사찰에 어린이법회와 청소년법회가 개설돼 매주 법회활동을 하고 있지만, 포교방법론적 측면에서는 2000년을 앞둔 현재까지도 80년대식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인터넷과 통신을 통한 어린이 청소년 포교는 아직 결말이 도래하지 못한 상태이다.

그나마 뜻있는 어린이 청소년 지도자들이 어린이 청소년 포교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과 연대모임을 꾸준히 열고 있지만, 이대로라면 한국불교의 미래는 더 이상 푸르밋이 될 수 없다. 개인과 단체의 힘이 하나로 모아질 수 있는 다양한 포교대안 마련이 시급하다.

■ 여성불교운동

불교인구의 70%가 넘는 여성불자를 위한 빈번한 전국조직조차 없는게 20세기 여성불교운동의 현주소다.

지난 6월 조계종 포교원 주최로 열린 '새 흐름을 모색하는 여성불자 워크숍'을 시작으로, 불교여성개발원 설립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했다. 그러나 지난 10월의 종단 사태 이후 잠시 주춤했다. 최근에는 불교여성개발원과 포교원과의 갈등으로 창립준비위원회 발족이 무산될 위기에 봉착해 있다.

불교여성개발원의 설립을 통해 이념개발과 교육, 실천사업을 통해 여성불교운동의 전형을 펼칠 수 있도록 힘을 모아야 할 때다. 21세기는 부처님의 가르침과 여성성이 조화를 이룬 새로운 여성상을 원하고 있다.

■ 사찰 재정의 투명화

12월 9일 불교바로세우기 재가연대에서

20세기를 보내면서 지난 100년 동안에 마무리하지 못한 일은 무엇이며, 불교계에 주어진 과제가 무엇인지 돌아보아야 한다.

서양적 물질문명의 폐해를 극복하고 21세기는 문명의 전환기가 되어야 하며, 문명의 지향은 불교의 중도와 무소유 해탈에 있다는 기대감이 자못 크다. 불교 내부에서도 사람과 사람, 사람과 자연의 갈등 대립을 극복

하기 위해 불교만큼 수승한 가르침이 없다고 강조한다. 그러나 사람들은 불교의 가르침을 새로운 삶의 지침으로 삼고자 하는 욕구와 함께 불교에 대한 불신감을 동시에 나타내고 있다. 결국 어떤 모습의 불교인가가 관건이다. 본지는 만 중생에 희망을 주는 불교의 모습으로 가꾸기 위해 짊어지고 가야 할 20가지의 과제를 제시한다. <편집자 주>

젊이 문제이다. 총무원의 소재조차 파악이 안 되는 곳이 있으며 각종 사회적으로 문제가 된 승려들과 연계가 되는 일도 있다. 종단의 가장 기본적으로 해야 할 체계적인 교육이나 수계 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곳도 있으며 내분으로 장기간 재판을 하고 있는 곳도 있다.

스님은 수행과 행동이 여법할때 삼보로 존경받을 수 있다. 그런 취지에서 종단합차원의 재재장차나 연수 등을 정례화해 이들 종단들이 내실을 갖추고 정체성을 확립할 수 있도록 범종단 차원의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

■ 승가교육·수행 체계화

조계종의 경우 승가교육이 기초, 기본, 전문교육기관 등으로 세분화되어 있지만 이제 시행된지 채 5년이 못되어 '수행적 측면의 간과'라는 운영상의 문제점이 노출되고 있으며, 중앙승가대와 동국대, 지방승가대의 역할 분담이 모호한 상태이다. 태고·천태·진각·총지종 등을 제외한 군소종단의 승가교육은 전무한 실정이라 해도 과언이 아니다.

선원 안거사 이력관리, 강원 졸업고사 및 비구(나) 고시제 등 각종 승가교육기관의 종합적인 학사관리가 필요한 시점이다. 또 선과 교학, 전통과 현대학문이 조화된 교육과정의 개발이 절실하고 신도들을 교화할 수 있는 능력 배양도 필요하다. 올바른 수행승, 교학승, 행정승 등을 치우침 없이 양성하는 것이 승가위상 확립과 불교중흥의 초석이 됨을 명심해야 한다.

■ 불교TV 경영정상화

1995년 3월 1일 세계 최초로 영상 매체 포교의 새장을 연 케이블 불교TV가 총체적인 어려움에 봉착했다. 개국 초기의 가입자 저조, 전송망 설치 부진, 케이블 컨버터 공급불량 부족 등 전체 케이블TV 업계의 어려움 속에서도 영상포교사라는 사명감으로 지탱해왔던 불교TV의 경영난은 97년 IMF위기를 맞으면서 급속히 악화됐다. 이에 맞물려 대대적이자 종단사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하면서 파행운영의 국면에 돌입하다 99년 한 해에만 대표이사 4명이나 교체됐다.

절단 영상매체의 시대인 현대사회에서 텔레비전은 바로 그 상징이랄 수 있을 정도로 영향력을 갖는다는 점에서 불교TV 경영정상화는 시급한 숙제이다. 전문 인력을 양성하고, 고급의 기술을 축적해 전문방송으로서의 영역을 확고히 구축하는 것도 그때 비로소 가능한 일이다.

■ 은처·축재승 축출

97년 한 해 동안 조계종의 승종관련 사건은 134건에 이르렀다. 도박·은처·개인 재산 축적 등은 인연의 사표로 추앙받아야 할 스님으로서서는 해서는 안될 행위이다. 도박과 은처는 교단의 질서를 문란시킴은 물론 사회적인 문제가 된다.

조계종의 총무원장 선거가 있거나 분규가 생기면 꼭 괴문서가 나돌고, 괴문서에는 이름만 들어도 알만한 스님들을 거론하며 도박·은처·축재의 비리를 저질렀다는 내용 일색이다. 물론 확인할 수 없는 내용들이지만, 승풍이 흐트러졌음을 반증하는 것일만 틀림없다.

95년 당시 종정 율하스님도 승종의 진작을 총무원장에게 당부했으며, 이에 따라 호법부에서 조사에 나서기도 했다. 그러나 이후 처리 결과는 알려지지 않았다. 철저한 조사와 종헌·종법에 의거한 엄정한 처벌이 뒤따라야 한다는 여론이다.

■ 왜색불교 청산

한국불교는 아직도 일본의 그늘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조계종 교구 본사제도만 해도 조선총독부가 1911년 조선불교를 장악하기 위해 도입한 것인데, 지금까지 그대로 남아있다. 비구승과 대처승간의 문제도 일제 식민지통치하에서 생긴 '대처승'이라는 산물에서 비롯됐다. 참선수행 풍토가 급격히 약화된 것도 일제시대를 거치면서부터다.

일본 불교학계의 철저한 연구성과를 그대로 소개만 해도 논문으로 인정되면 것이 불과 얼마전 우리 불교학계의 실정이었다. 상당수의 불교미술 용어가 일본어에 바탕을 두고 있다. 불상과 향 등 일본의 불교용품이 대량 유통되고 있고, 우리

사찰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만월등도 왜색 불교의 잔재이다. 전통적인 우리 불교의 모습을 되찾기 위한 노력과 의지 여하에 따라 새 천년의 한국불교는 그 운명을 달리하게 될 수도 있다.

■ 기록신행 혁신

사이버시대가 도래했음에도 기록적 신행형태는 여전하다. 기(氣)를 방사해 소원을 이루고 병을 고친다는 탁마도의 유행, 점술과 역술, 치병능력 등을 포교방편으로 삼아 신도들을 모으는 스님들의 확산 등 기록 신행이 날로 더해가고 있다. 불자 입에도 불구하고 전통불교의 정제법인 화상이 확산되지 않는 것도 잘못된 풍수지리학에 의한 발복(發福)신앙을 고수하고 있다는 증거다.

절에 가서 길일 택일이나 부적을 요구하거나 건강과 시합 합격, 경제적인 부 등 개인적인 행복을 위해 신앙의 대상에게 기도하는 신행형태는 불교의 신행관과는 거리가 멀다. 스스로 깨달아 증성을 교화하는 자각각타(自覺覺他)의 길을 걷는 것이 불자의 바른 태도이다. 기도와 발원의 바른 의미 등 불교교리에 대한 철저한 기초교육, 기록신앙에 치우치는 신도의 교화, 지속적인 경건 공부 등이 필요하다.

■ 신도회 역할 확립

지난 50년대 청정순단을 기원했던 재가 불자들의 열원이 모여져 조계종 전국신도회가 결성되었지만, 기초단위인 사찰에 뿌리를 내리지 못한 한계를 안고 있었다. 94년 중앙신도회가 창립되었지만 총무원의 주도하에 만들어져 신도조직운동의 역량부족을 드러냈다.

불교계를 대표하는 신도회는 종단을 옹호하고 발전시키는 역할을 다해야 한다. 종단 내에서 종단 사업에 대한 신도들의 참여를 유도하고 신도대중의 여론을 수렴해 종단정책에 반영시키는 중간자적 소임을 맡아야 한다. 종단의 재반사업에 대한 건전한 비판과 대안 제시도 잊지 말아야 하며, 포교와 사회참여 활동에도 적극 나서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회비에 의한 재정지립과 종단의 지도와 조화되는 자율성 확보, 민주적 운영의 원칙이 전제돼야 한다. 다양한 교육·연수프로그램을 통한 신도들의 의식과 신행 혁신을 통한 조직 활성화가 시급하다.

■ 불교종합회관 건립

불교종합회관 건립은 20세기 최고의 대작불사로 여겨져 왔을만큼 불교계의 오랜 숙원사업이었다. 그러나 새천년을 불과 10여일 앞둔 지금 불교종합회관 건립은 요원한 실정이다. 몇 해 전부터 '대형 사찰 건립 붐'이 불면서 각 사찰이 불교회관의 역할까지 수행하고 있기는 하지만, 2천만 불자들의 구심체 역할을 할 불교종합회관 하나 없다는 것은 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다. 조계종의 경우 96, 99년 2번의 원 규모로 불교회관 건립을 계획했으나, 종단 사태 등으로 결실을 맺지 못했다.

불교종합회관 건립 필요성에 대한 스님과 재가 신도들의 인식 및 의식 전환이 선행돼야 한다. 새 천년에는 총종적으로 매년 불교종합회관 건립을 위한 기금을 책정하는 것은 물론 1천만 불자 모두가 벽돌 한장 한장을 정성해서 쌓는 마음으로 우리 불교의 백년대계를 이루어 나가는 일에 역량을 결집해야 한다.

■ 성보 공개주의

성보문화재 보호를 위해 교계 문화재 전문가들은 '성보 공개주의'에 우선 순위를 매기고 있다. 성보의 특징, 소유주를 분명히 알릴 수 있는 공개만이 단란과 유통을 근본적으로 막는 대책이라는 것이다. 각 성보마다 사진 자료와 학술 자료 그리고 전산화의 단계를 거치면 된다. 조계종총무원이 '성보실태조사'와 '교구 본사 성보 전산화'에 주력하고 있는 것도 이같은 맥락이다.

도난 사체가 빈번한 비지정 성보를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해야 한다. 또 제도적 장치에서 벗어난 성보를 보호하기 위해서는 '종단 지정문화재 제도'를 수립해야 한다. 송광사 국사전 영정을 비롯한 도난 성보의 회수도 과제로 남아 있다.



그래픽=최정근

조계종단의 발전과 국민의 신뢰회복을 위해 건의한 다섯 가지 제안 가운데 첫 번째가 사찰재정의 공개였다. 재정 운영의 문제로 교단의 안정과 청정성이 훼손되지 않아야 한다는 간곡한 바람을 전달한 것이다. 올해 본지가 1년 동안 펼친 한국불교 이거부터 고집시다' 캠페인에서도 가장 많은 불자들이 한국불교의 개혁을 위해 시급히 시행해야 할 중요 사안으로 꼽았다.

사찰재정 공개는 천태종 등의 종단과 조계종의 일부 사찰에서 사찰운영위원회를 구성해 실시하고 있다. 불교의 재정관리의 이념은 '공유재산'이다. 투명한 재정관리가 불교개혁의 시급성이다. 스님들이 불전함을 열고 돈을 해아리는 모습을 더 이상 보여줘서는 안된다.

■ 조계-태고종 분규해결

1954년 이승만대통령 유시로 비롯된 조계-태고종의 사찰 빼앗기·사수 싸움은 반세기의 세월 동안 계속돼 왔다. 1962년 통합종단을 이뤄냈지만 분규는 계속돼 70년 태고종이 따로 창종되고도 법정다툼은 그치지 않았다. 조계 태고종간의 사찰분규는 불교재산의 망실과 도피현상을 빚어

불교재산관리법 제정의 밑거름 제공했다. 조계-태고 양측은 89년 분규사찰인 선암사를 재단법인으로 하고 7:6으로 이사 구성, 풍원사는 5:5로 재산 분할 관리기로 실무대표단에서 합의했으나 이후 교착상태에 빠졌다.

고산스님이 조계종 총무원장에 취임한 직후인 99년 4월 양 종단은 분규해결 특별추진위원을 꾸렸으나 더 이상의 진전은 없는 상황이다. 선암사 봉원사 안거사 용궁사 백련사 불국사 성주암 등 7개 분규사찰의 해결은 양 종단이 양보할 것은 양보하는 등 과감한 조치가 있어야만 해결을 볼 전망이다.

■ 종단 정체성 확립

1987년 불교재산관리법이 폐지되고 전 동사찰보존법으로 대체 입법된 이후부터 종단들의 분종과 창종이 우후죽순처럼 잇따랐다. 99년 올해만 해도 새로 창종된 종단이 8개이다. 현재 불교종단은 80개가 넘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종단의 숫자가 많다는 것이 문제가 되는 것은 아니다. 이들 종단들이 종지, 종풍, 소의경전, 수행 체계 등에 큰 차이가 없고 스님들의 파벌이나 이해득실에 따라 분종 창종된다는